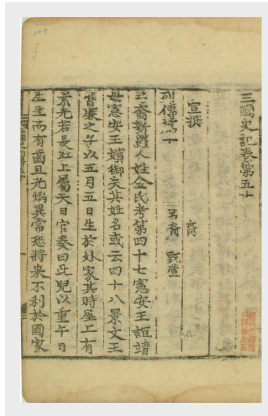


후고구려의 건국 궁예, 고구려를 계승하여 나라를 세 우다

901년(효공왕 5)



삼국사기 궁예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후고구려(後高句麗)는 901년(효공왕 5) '고려(高麗)'라는 국호(國號) 아래 궁예(弓裔, ?~918)에 의해 건국되었다. 한반도 북쪽에 위치하며 발해 및 후백제, 신라와 접하였던 나라였다. 후고구려가 건국된 시기는 신라 말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며 전국적으로 소요가 발생하던 때였다. 혼란한 정국 속에서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하며 900년(효공왕 4) 견훤(甄萱, 867~936)이 세운 후백제(後百濟)와 더불어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를 열었다. 궁예는 황해도 일대의 패서(溟西) 지역뿐만 아니라 한산주 일대, 충청도 등을 장악하며 후삼국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였다. 하지만 포악한 정치를 펼친 궁예가 918년 왕건(王建, 877~943)에 의해 축출되면서 후고구려는 몰락하였다.

2 궁예, 독립적 세력을 구축해가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신라의 헌안왕(憲安王, 재위 857~861) 혹은 경문왕(景文王, 재위 861~875)의 아들이라고 전한다. [관련사료](#) 10여 세에 세달사(世達寺)로 가서 출가하였고 스스로 선종(善宗)이라 법호를 지었다. [관련사료](#) 이후 궁예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고자 하였고 891년(진성왕 5)에 현재 경기도 안성시 일대인 죽주(竹州)의 기훤(箕萱)을 찾아가 부하가 되었다. 하지만 기훤이 제대로 예우해주지 않자 892년(진성왕 6) 현재 강원도 원주시 일대인 북원(北原)의 양길(梁吉)에게 의탁하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능력을 인정받은 궁예는 양길에게 받은 군대를 이끌고 주변의 여러 지역을 정벌하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이후 894년(진성왕 8) 10월에는 6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현재 강릉 지역인 명주(溟州)에 들어가 점차 병력을 모아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때 그가 스스로 장군(將軍)이라 칭하였다는 기록은 그가 당시 양길의 휘하에서 벗어나 독립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사료](#)

궁예는 895년(진성왕 9) 3,500명을 거느리고 명주를 떠나 철원(鐵原)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에 패서(溟西) 지역의 많은 세력가들이 궁예에게 귀부하였고, 896년(진성왕 10)에 처음으로 철원을 도읍으로 삼았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이후 왕건(王建)의 아버지인 송악(松嶽)의 왕릉(王隆)이 귀부하였고 898년(효공왕 2) 7월에는 패서도(溟西道)와 한산주(漢山州)의 성을 장악하고 송악으로 도